

“목사님! 이제 청도에는 왜 가는지 이야기 해주면 안되나요?...꼭 밑월 여행가는 것 같아서요....ㅋㅋㅋㅋㅋ”

“하하하하.....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드린다는 것을 권 선생님 얼굴 보면서 마음이 들떠서 이야기를 못 했네요. 사실 청도에서 중국 지역과 여러 나라 선교사님들이 2박 3일간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종교국과 안정국(한국에 국정원)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렇게 불편하게 권 선생님을 초빙 하는 것 입니다.”

“저는 선교사님들과 아무 상관 없는데요.....?”

“하하하...선교사님들이 아픈 분들이 너무 많아서 선생님에게 건강상담을 받았으면 해서 모시고 가는 것 입니다. 그곳에 가시면 필리핀, 인도, 그리스, 미국의 선교사님들과 중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실 것 입니다. 건강상담을 잘 부탁 드립니다”

“건강 상담이라면 제가 해드리죠”

“그리고 혹시 세미나도 해줄 수 있나요?”

“배정된 시간은요?”

“내일 오전에 10시에 행사가 모두 끝납니다. 그 후부터 4~5시간 사용 가능 합니다”

“그러면 장소를 변경해서 했으면 합니다. 같은 장소에 세미나 건강 상담하기에는 제가 종교국에 고발 당하고 싶지 않거든요....하하하하하”

“알겠습니다. 저희 쪽에서 식당 예약을 해놓았으니 그곳에서 이동하여 개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서안 비행기는 마른 잔디밭을 박차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2시간20분 비행시간 동안 세미나 내용을 머리에 정리하기 시작 했습니다.

오지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건강문제와 응급 상황 처리에 대한 내용과 간단한 약 처방을 머리 속으로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눈을 부치고 있는